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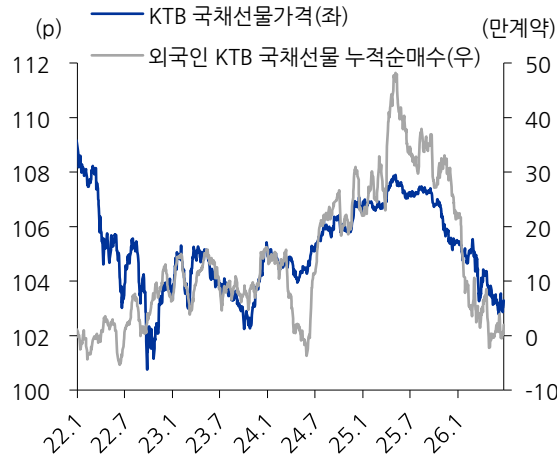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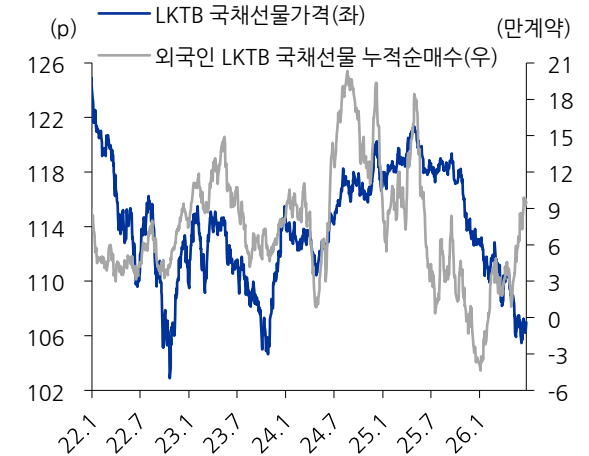
(단위: %,bp, 톱)

	6/26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22%	-3.5	-6.2	76.9
	한국 국고채 10년물	4.117%	-2.7	-5.4	73.2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9.5	38.7	38.7	43.2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29	18.0	35.0	-215.0
	10년 국채 선물(LKTB)	106.98	35.0	73.0	-594.0
	미국채 2년물	4.093%	-3.1	-8.6	62.1
	미국채 10년물	4.371%	-2.3	-8.4	20.3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27.8	27.0	27.6	69.6
	독일국채 10년물	2.851%	-0.6	-13.6	-0.4
호주국채 10년물	4.722%	-0.5	-5.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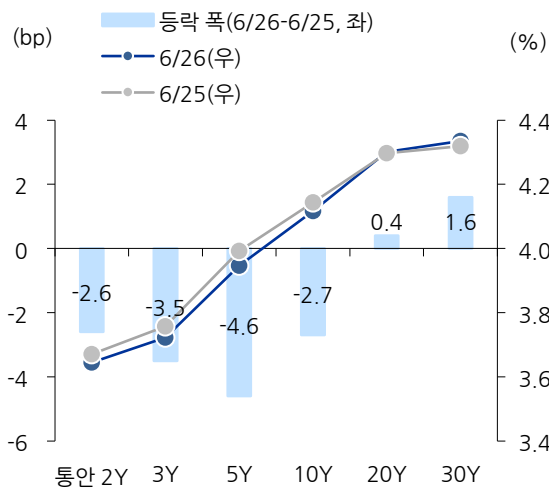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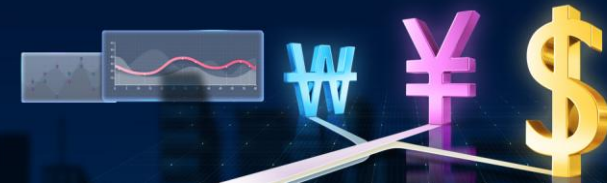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
- 간밤 미국 5월 PCE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국내 금리 하락 출발. 차주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앞두고 부담감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도 여전히 1,54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경계심 이어져 금리 하락폭은 더 확대되지 못했음.
- 오후 들어 금리 하락폭 확대된 이유는 주가 폭락과 정부의 환율 개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30년물 제외 강세 마감.
- 유가 하락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 하락.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원유 허브인 라스타누라항에서 원유를 선적했다는 보도가 나타났기 때문.
- 이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연내 1번 인상을 언급했지만 6월 FOMC 이후 이미 반영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은 없었음.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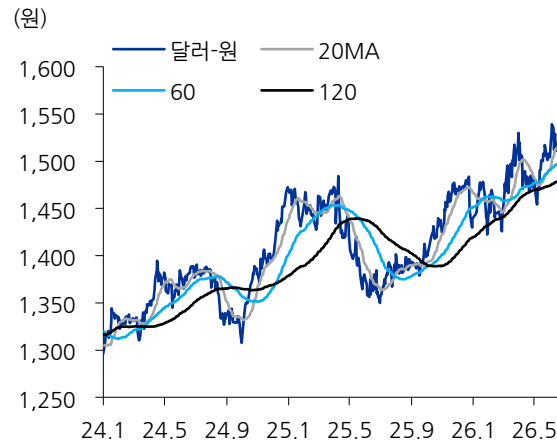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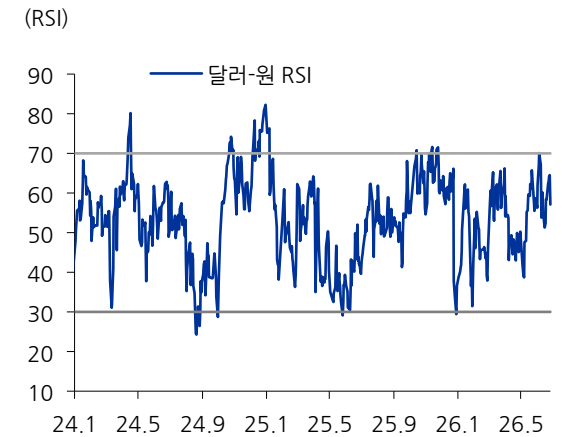
(단위: %, \$)

	6/26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532.00	-0.7%	0.3%	6.5%
	달러지수	101.37	-0.1%	0.6%	3.1%
	달러/유로	1.139	0.1%	-0.8%	-3.1%
	위안/달러(역외)	6.80	0.1%	0.3%	-2.6%
	엔/달러	161.75	0.0%	0.3%	3.3%
	달러/파운드	1.320	0.1%	-0.2%	-1.9%
상품	해알/달러	5.17	-0.2%	0.6%	-6.3%
	WTI 근월물(\$)	69.23	-3.7%	-9.6%	20.6%
	금 현물(\$)	4,089.62	1.6%	-1.7%	-5.3%
비트코인(\$)	59,763.00	1.0%	-5.1%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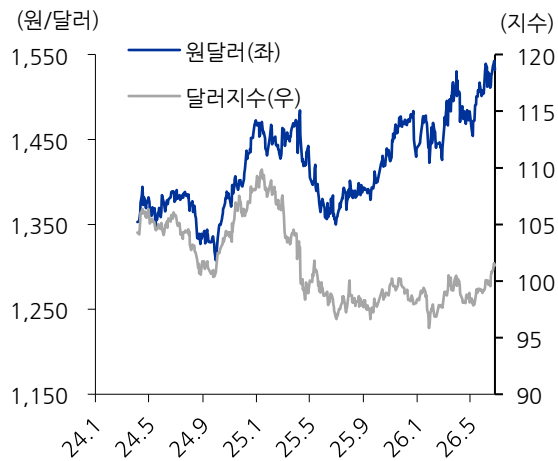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외환당국 개입 추정 물량에 -10.70원 하락한 1,532.00원에 서울환시 마감(야간 1,535.80원).
-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매 이어지며 오전장 1,550원 부근까지 상승했으나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 대거 출회되며 하락.
- 달러-원은 유가 하락과 당국 개입에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주간 코스피 -16.6조원)에 주간 +5원 상승.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또한 원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수출 호조와 성장 기대 상승에도 원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외국인의 증시 매도가 큰 부담임. 금주 미-이란 추가 협상 관련 소식에도 주목할 필요.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국제유가 하락에 물가 우려 완화되며 소폭 하락(DXY -0.1%).
- 사우디 아람코가 4개월여 만에 걸프만 핵심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선적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락(WTI -3.7%).
-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중동 리스크 축소 반영되며 49.5로 전월(44.8) 대비 개선.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 4.6%(전월: 4.8%), 장기 3.3%(전월: 3.9%) 기록하며 달러 강세 완화를 지지.
- 미-이란의 상호 공격 중단 합의 발표 나왔으나, 주말간 중동 공습 소식 이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됨.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미국의 경기 우위 기대 또한 유효. 당분간 달러 하단은 견고할 것으로 예상.